

'다정함을 가장한 프레임'의 경계를 허물다



② 타인의 고통을 재단하는 시선에 대해

뉴스를 천천히 읽으며 연습하는 다정한 환대의 기술
타인의 삶을 있는 그대로 존중·응원하는 미디어 읽기

교실에서 아이들과 정치적 약자나 소외 계층에 대한 뉴스 기사를 펼쳐놓으면,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반응은 대개 비슷하다. “불쌍해요”, “도와줘야 해요” 같은 즉각적인 동정의 언어들이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이지만, 미디어 교육을 진행하는 교사의 시선에는 늘 한 줄기 고민이 스친다. 이러한 온정이 때로는 상대방을 ‘늘 슬프고 무력한 존재’로만 가두어버리는 또 다른 프레임(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미디어가 보여주는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뉴스 속 인물의 삶 전체를 ‘망가진 것’으로 쉽게 재단하곤 한다. “피해자는 늘 울고만 있어야 한다”거나 “도움을 받는 사람은 언제나 감사해하고 유약해야 한다”는 식의 고정관념, 이른바 ‘피해자다움’이나 ‘약자다움’의 강요다.

이러한 시선은 얼핏 다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주체성과 일상을 복원할 기회를 빼앗는 무서운 ‘배제’가 될 수 있다.

1부(뉴스 슬로우 리딩으로 회복하는 환대의 기록) 2회차 수업에서 우리는 바로 이 ‘다정함을 가장한 프레임’의 경계를 허무는 뉴스 슬로우 리딩을 시도했다.

아이들에게 건넨 텍스트는 범죄나 재난 피해 이후, 곳곳하게 자신의 일상을 일구어 나가며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는 생존자들의 심층 인터뷰 기사였다.

1. 기사의 행간에서 ‘박제된 슬픔’을 걷어내다

아이들은 평소 읽던 방식대로 기사를 3초 만에 훑어보고는 습관적으로 “피해자가 너무 안됐어요”라고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교실의 속도를 늦추고 [활동지 1: 단어 정검다리]를 통해 문장을 꼭꼭 씹어 읽기 시작하자, 아이들의 시선이 다른 곳에 멈춰 섰다. 기사 속 인물이 세상의 편견에 맞서 내뿜은 “나는 언제까지나 피해자로만 살지 않을 것”이라는 문장에 아이들은 밑줄을 긋기 시작했다.

이어진 [활동지 2: 행간의 실루엣] 시간, 아이들은 미디어의 객관적 서술 뒤에 숨겨진 인물의 진짜 목소리를 상상해 가장 일기로 채워 넣었다.

한 학생은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은 나를 볼 때마다 울어달라고 말하는 것 같다. 하지만 나는 오늘 친구와 떡볶이를 먹으며 웃었고, 내일의 꿈을 향해 공부해 했다. 나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이겨내고 있는 단단한 사람이다.”

아이들이 쓴 글 속에서 뉴스 속 인물은 더 이상 ‘동정의 대상’으로 납작하게 박제된 존재가 아니었다. 상처를 안고서도 매일의 밥을 먹고, 농담을 나누고,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입체적인 인간’이자 우리와 같은 ‘세계의 주인’으로 되살아나고 있었다.



수업 계획하기

- ▶ 수업 대상: 청소년(중·고등학생) 및 미디어 리터러시 학습자
- ▶ 수업 주제: 뉴스 속 ‘피해자다움·약자다움’의 프레임 분석과 타인의 존엄 읽기
- ▶ 활동 자료: 사회적 재난이나 범죄 극복 후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생존자들의 심층 인터뷰 뉴스
- ▶ 수업 성취 기준:
 - 미디어가 소외계층이나 피해자를 묘사할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프레임을 비판적으로 찾아낼 수 있다.
 - 선부른 동정이나 연민이 가질 수 있는

- ▶ 수업 대상: 청소년(중·고등학생) 및 미디어 리터러시 학습자
- ▶ 수업 주제: 뉴스 속 ‘피해자다움·약자다움’의 프레임 분석과 타인의 존엄 읽기
- ▶ 활동 자료: 사회적 재난이나 범죄 극복 후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생존자들의 심층 인터뷰 뉴스
- ▶ 수업 성취 기준:
 - 미디어가 소외계층이나 피해자를 묘사할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프레임을 비판적으로 찾아낼 수 있다.
 - 선부른 동정이나 연민이 가질 수 있는

- ▶ 수업 대상: 청소년(중·고등학생) 및 미디어 리터러시 학습자
- ▶ 수업 주제: 뉴스 속 ‘피해자다움·약자다움’의 프레임 분석과 타인의 존엄 읽기
- ▶ 활동 자료: 사회적 재난이나 범죄 극복 후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생존자들의 심층 인터뷰 뉴스
- ▶ 수업 성취 기준:
 - 미디어가 소외계층이나 피해자를 묘사할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프레임을 비판적으로 찾아낼 수 있다.
 - 선부른 동정이나 연민이 가질 수 있는

1. '수업 실천 공유' 사유를 일상으로 채우는 '환대의 식탁'

슬로우 리딩의 종착지인 [활동지 4: 나의 리터러시 식탁] 시간, 하얀 접시 활동지 위에는 타인의 존엄을 지켜주기 위한 청소년들의 정성 어린 ‘행동 지침’들이 음식처럼 맛깔나게 차려졌다.

아이들은 선부른 동정이 상대에게 권력 관계나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스스로 깨닫고, “정중한 거러두기”와 “다정한 환대”의 균형을 식탁 위에 디자인해 냈다. “인터벳

뉴스에서 누군가의 불행을 가십처럼 소비하지 않기”, “도움을 줄 때 상대방이 부끄럽지 않도록 배려하는 말투 사용하기”, “학교에서 어려운 일을 겪은 친구를 만날 때, 과도하게 캐묻지 않고 평소처럼 대화하기” 같은 구체적인 약속들이 터져 나왔다.

뉴스를 천천히 읽는다는 것은, 타인의

고통을 내 마음대로 정의하거나 재판하지 않는 오만한 시선을 내려놓는 일이다. 타인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들의 온전한 일상을 응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실에서 뉴스 한 조각을 사이에 두고 매주 연습하는 가장 다정한 환대의 기술이다.

<연재팀/미디어교육연구회 'ON' >



제주출발 주말 감성 선유도 여행

선유도 + 전주한옥마을 + 옥정호 출렁다리

1일차: 제주공항 출발(08:20) - 광주공항 도착 - 곡성 기차마을 - 중식 - 옥정호 출렁다리 및 봉어섬 생태공원 - 전주한옥마을 - 석식 - 호텔 체크인 후 자유시간

2일차: 조식(호텔식) - 선유도 유람선 - 중식 - 체석강 - 광주공항 출발(18:20) - 제주공항 도착 후 해산

2인1실 489,000원 3인1실 485,000원 4인1실 480,000원

포함내역: 왕복항공료(유류대포함), 호텔료, 입장료, 식사로, 차량료, 가이드비, 여행자보험

출발일: 6월 27일, 7월 4일, 11일, 18일

영화 속 주말여행 왕과 사는 남자

장릉 + 청령포 + 충주호유람선 + 도담삼봉

1일차: 제주공항 출발(08:10) - 청주공항 도착 - 단종의요 장릉 - 중식 - 청령포 유배지 - 석식 - 호텔 투숙

2일차: 조식(호텔식) - 충주호 유람선(장화나루) - 중식 - 도담삼봉 - 본초다림(한방족욕+한방차) - 청주공항 출발(18:55) - 제주공항 도착 후 해산

2인1실 489,000원 | 3인1실 485,000원 | 4인1실 480,000원

왕복항공료(유류대포함), 호텔료, 전일정 식사로, 입장료, 차량료, 가이드비, 여행자보험

출발일: 6월 20일, 27일, 7월 4일, 11일, 18일

주말 실속 여행 1박2일

장성+익산+광주+무안+목포

장성백양사, 익산 아가페정원, 광주, 무안 전통생활 테마파크

Day1: 제주공항 출발(08:20) - 광주공항 도착 - 장성 백양사 - 중식 - 1일차 익산 아가페정원 - 고스락(커피비용 개인부담) - 교도소 세트장 - 석식 - 광주호텔 체크인 후 자유시간

Day2: 조식(호텔식) - 무안 전통생활문화 테마파크 - 목포 유람선 - 중식 - 2일차 목포 해상케이블카 - 광주공항 출발(18:20) - 제주공항 도착 후 해산

2인1실 489,000원 3인1실 485,000원 4인1실 480,000원

포함내역: 왕복항공료(유류대포함), 호텔료, 전일정, 식사로, 입장료, 차량료, 가이드비, 여행자보험

출발일: 7월 4일, 11일, 18일 (단, 3회)

주말 환상 여행 1박2일 (토~일)

청주·단양·영주·안동

1일차: 제주공항 출발(08:10) - 청주공항 도착 - 단양 만천하 스카이워크(모노레일) - 중식 - 영주 부석사 - 석식 - 월영교 야경

2일차: 조식(호텔식) - 안동 하회마을 부용대 전망대 - 중식 - 안동 중앙시장 - 청주 초정행궁(죽목) - 청주공항 출발(18:55) - 제주공항 도착 후 해산

여행 요금 (1인 기준, 2인1실)
2인1실 489,000원 3인1실 485,000원 4인1실 480,000원

포함내역: 왕복항공료(유류대포함), 호텔료(전일정), 식사로(전일정), 관광지 입장료, 차량료, 가이드비, 여행자보험

출발일: (단 3회 특가) 7월 4일(토) 7월 11일(토) 7월 18일(토)

제주자유여행사 협찬 | JEJUair 제주항공 문의 064-744-9111